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인가?

- 1장 질문❶ 군중 이것이 무엇인가?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인가? (27절)
- 2장 질문❷ 서기관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 질문❸ 서기관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7절)
- 질문❹ 서기관들 어찌하여 그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6절)
- 질문❺ 바리새인들 저희가 어찌 불법적인 일을 하는가? (24절)
- 4장 질문❻ 제자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41절)
- 6장 질문❽ 고향사람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2절)
- 7장 질문❾ 바리새인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유전대로 살지 않는가? (5절)
- 8장 답변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29절)

예수님의 사명

- 8장 수난예고 ❶ (31절)
- 9장 수난예고 ❷ (31절)
- 10장 수난예고 ❸ (33-34절)

예수님의 사명 성취

- 11-16장 수난, 십자가, 부활

메시아 비밀 messianic secret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1:34).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1:43).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3:12).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5:43).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7:36).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8:30).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9:9).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09 2번째 |
마가복음 5-8장 말씀

* 막 8:30-31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 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메시아 비밀 messianic secret ❶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가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정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를 가리켜 ‘메시아 비밀(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❶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지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본인의 진가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진짜 사명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4:13, 40, 6:52, 8:16, 9:10, 32)

사람들의 고백은 아직 ‘설익은 선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일부만 부각한 칭송은 앞으로 이루어질 더 큰 사역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람들은 아직 이야기 ‘전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그 간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말씀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전체를 알게 될 때까지 선부른 판단과 결론은 금물입니다.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 지금은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은 어떤 예수님을 바랐을까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들로 반격 해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던질만한 분인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마가는 십자가 앞에서 동일하게 고민했던 제자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난’이 사명이며, 그 뒤엔 부활이 있다고 세 번이나 명확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처럼 겪는 일의 전체를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발견하는 예수님

죽음 가까이에서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10:38).”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폭이 넓어집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벼랑 끝에서의 고백.
생사의 무게가 철학과 관념의 가벼움을 밀어내는 순간의 고백.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언어와 사고 너머에 예수님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언젠가 계림에 가서 500마리 호랑이 앞에 먹이로 던져진 소를 봤어요.
그 소가 파랗게 질려서 다리뼈가 부러지도록 울타리에 제 몸을 던져요.
생사 앞에선 누구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시인 이성복의 인터뷰 글 중.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
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팀켈러, 고통에 대해 말하다」, 막스 셀러의 글 인용.

* 두란노 How, IVP BST, 성서유니온 LABC, WBC,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CLC 신약개론(데이비드 A 드실바) 참고